

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증상 (소아 : 15 세 미만)

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119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!
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얼굴

- 입술 색이 보라색이고 호흡이 약하다



가슴

- 극심한 기침이나 혈떡거림으로 호흡이 힘들고 안색이 나쁘다

손발

- 손발이 경직되어 있다

머리

- 머리가 아프며 경련이 있다
-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의식이 없다 경련이 있다

배

- 극심한 설사나 구토로 수분 섭취를 못하고 식욕이 없으며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
- 극심한 복통으로 괴로워하며 구토가 멈추지 않는다
- 변에 피가 섞여 있다



의식 장애

- 의식이 없음 (대답이 없음) 또는 이상함 (몽롱함)

경련

- 경련이 멈추지 않음
- 경련이 멈추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음

삼킴

- 이상한 것을 삼켜 의식이 없음

두드러기

- 벌레에 물려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안색이 좋지 않음



화상

- 통증이 심한 화상
- 광범위한 화상

사고

- 교통사고를 당하였음 (강한 충격을 받았음)
- 물에 빠졌음
- 높은 곳에서의 추락

생후 3 개월 미만의 갓난아이

- 유아의 상태가 이상하다



◎기타, 평상시와 다른 경우나 상태가 이상한 경우

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증상 : (어른)

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119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!
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얼굴

- 얼굴 반쪽이 움직이기 어렵거나 저려온다
- 웃으면 입이나 얼굴 한쪽이 비뚤어진다
-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말을 하기 어렵다
- 시야가 흐리다
- 사물이 갑자기 이중으로 보인다
- 안색이 너무 나쁘다



머리

-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
- 갑작스런 고열
- 기대지 않고는 설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휘청거린다

가슴 /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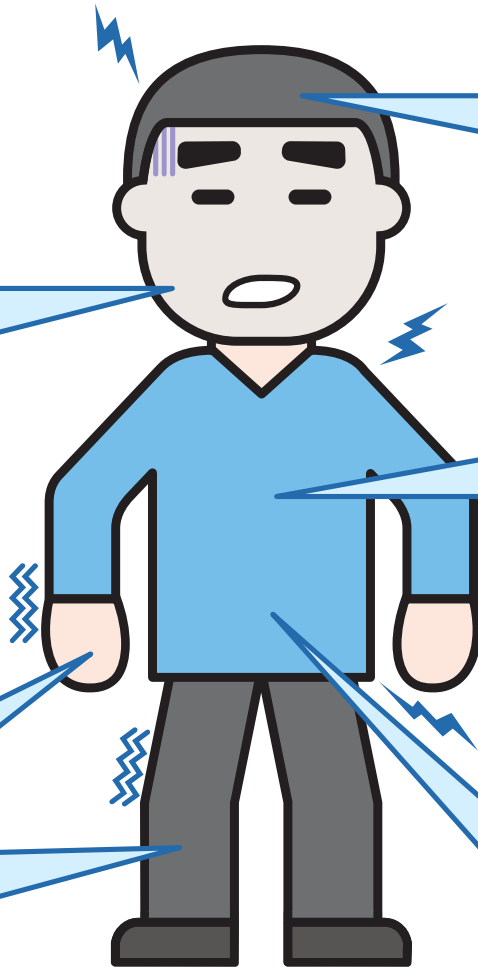
- 갑작스런 격통
- 갑작스런 헐떡임, 호흡곤란
- 가슴 중앙이 조르는 듯하거나 압박하는 듯한 통증이 2~3 분 지속된다
- 통증 장소가 이동한다

손발

- 갑작스런 저림
-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

배

- 갑작스런 극심한 복통
- 지속적인 극심한 복통
- 토혈이나 하혈이 있다



의식 장애

- 의식이 없음 (대답이 없음) 또는 이상함 (몽롱함)
- 축 늘어져 있음



경련

- 경련이 멈추지 않음
- 경련이 멈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음

상처 · 화상

- 대량 출혈을 수반하는 외상
- 광범위한 화상



구역질

- 한기와 땀을 수반하는 강한 구역질

삼킴

-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이 어려움
- 이상한 물건을 삼켜 의식이 없음



사고

- 교통사고를 당하였음 (강한 충격을 받았음)
- 물에 빠졌음
- 높은 곳에서의 추락

◎기타, 평상시와 다른 경우나 상태가 이상한 경우

구급 신고 포인트

구급차를 부를 때의 전화번호는 「119번」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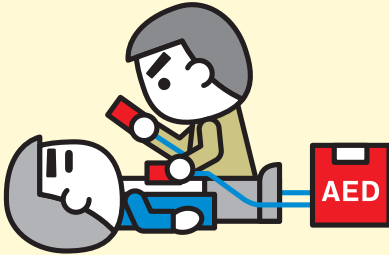
살릴 수 있는 목숨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**응급처치**가 중요합니다.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본부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만일의 경우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**올바른 응급처치**를 익혀 둡시다

AED를 누군가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십시오.



평균 7.9분
(2009년 중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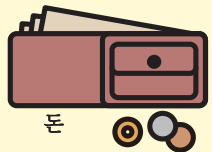
가까운 소방서에서는 **응급처치**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소방서 전화번호는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

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외에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**구급차가 올만한 곳까지** 나가 안내를 해 주시면 도착이 빨라집니다



구급차를 불렀다면, **이러한 것들은 준비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.**

- 여권
- 의료보험증이나 진찰권
- 돈
- 신발
- 평소 복용중인 약 (복약수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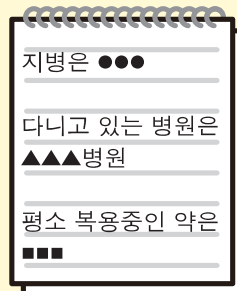


- (영유아의 경우)
- 모자건강수첩
 - 일회용 기저귀
 - 우유병
 - 타올



구급차가 도착하면, **이러한 것들을 알려 주십시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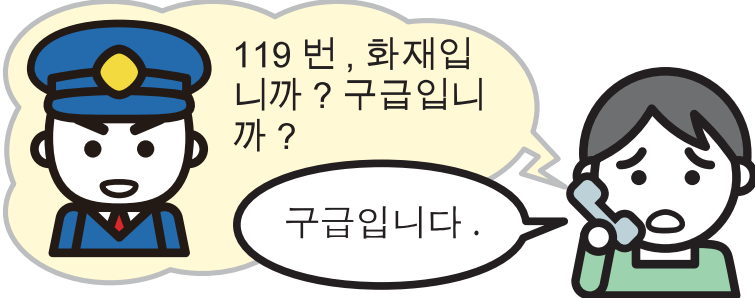
- 사고나 상태가 나빠진 상황
-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의 변화
-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
- 상태가 나쁜 분에 대한 정보 (지병, 다니고 있는 병원이나 클리닉, 평소 복용중인 약, 의사의 지시 등)



* 지병, 다니고 있는 병원이나 클리닉 등은 평소 메모하여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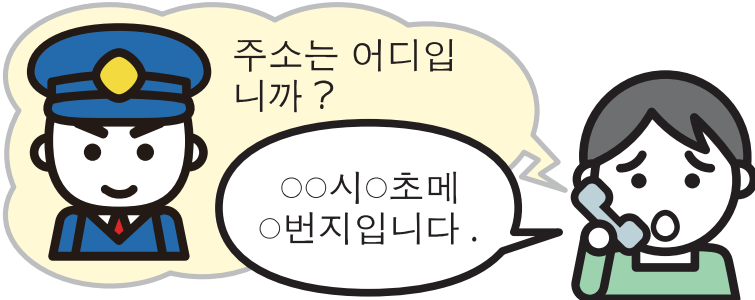
구급차 요청 방법

119 번 신고를 하면 상황직원이 구급차 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물어봅니다.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묻기 전이라도 구급차가 출동합니다. **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답해 주십시오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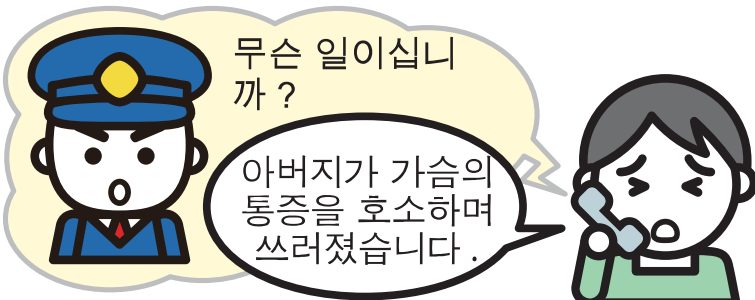
1 구급이라는 사실을 말한다

119 번 신고를 하면 우선 “구급입니다” 라고 알려 주십시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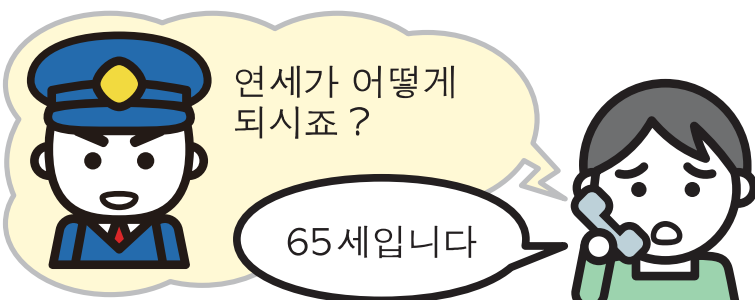
2 구급차가 도착할 장소의 주소를 말한다

주소는 반드시 시정촌명부터 알려 주십시오. 주소를 모를 때에는 근처에 있는 큰 건물, 교차로 등 눈에 띄는 장소를 알려 주십시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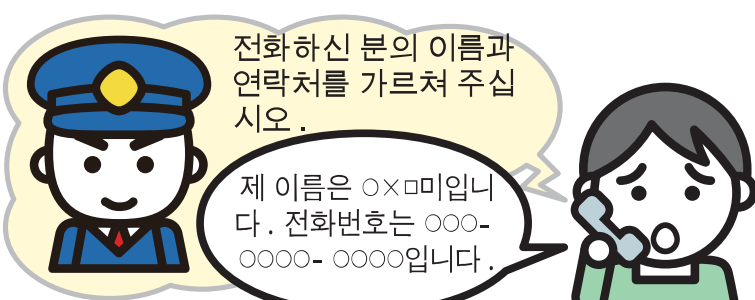
3 환자의 증상을 말한다

먼저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되었는지 간결하게 알려 주십시오. 또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식, 호흡의 유무 등을 알려 주십시오.



4 환자의 연령을 말한다

환자의 연령을 알려 주십시오. 모를 때에는 “60 대” 와 같이 대략적인 연령이라도 상관없습니다.



5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한다

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119 번 신고 후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. 장소가 정확하지 않을 때 등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* 기타 자세한 상황, 지병, 다니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.

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 주십시오.

*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질문 내용입니다.